

# 일제강점기, 뼈아픈 남북 공동 역사

딥페이크 기술로 읽는 위인전  
: 독립운동가들의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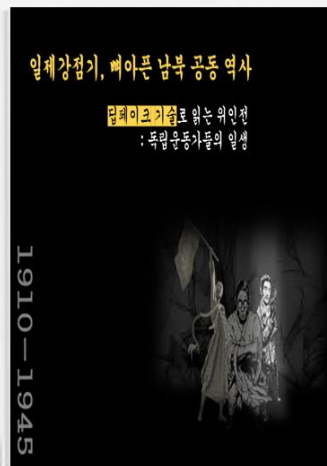
1910-1945

# 결과물

## 딥페이크 기술 + 독립운동가의 일생 남북 공동 역사 콘텐츠 개발(영상)

“영상을 통해 실제 살아있는 것 같은 독립운동가와의 만남”

Deepfake를 이용하여 실제 제작한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위인전(영상 클릭 ↓)



# Preview

## 김원봉

김원봉은 일제 강점기의 의열단장이자 난창에서 중국 공산당에 관여한 군인이다.

호는 약산(若山),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경남 밀양에 의열 기념관이 있다.

1919년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였고,

황푸 군관학교를 거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임시의정원(경상도 지역구)의원, 한국 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으로 활동하였고,

1944년 임시정부 군무부장에 선출됐다.

1946년 2월 민족주의민주전선 공동의장,

6월 인민공화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48년 김구·김규식 등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한 뒤에 그대로 북한에 남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 후 국가검열상, 조선인민공화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 기대 효과

-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신기술과 역사와의 융합을 통한 역사 분야의 관심도 증가
-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증가
- **역사 교육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
- **남북 공동 역사 문화 인식 고취**
- **남북 공동체 의식 강화**

